줄줄이 낮춘 내년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고금리에 소비·투자 위축…정부투자 기대 어려워

한은 8월 성장률 2.2% 예상…30일 새전망 발표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에 주요국들의 경기 냉각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한국은행도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예상치를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달 30일 '11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제시한다. 한은은 지난 8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로 각각 1.4%와 2.2%를 전망한 상태다.

올해 들어 한은은 경제전망 때마다 전망치를 수정해 왔다. 지난 2월 올해 성장률로 1.6%를 제시한 한은은 5월에는 1.4%로 0.2%포인트 낮췄다.

내년 전망치도 매번 바꿨다. 지난 2월 내년 성장률을 2.4%로 예상하더니, 5월에는 2.3%로 낮췄다. 8월에는 2.2%로 0.1%포인트 더 내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고금리에 따른 민간소비와 투자위축 등이 발목을 잡으며 이마저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주요 교역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점이 문제다.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국 경기도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가 내림세와 고용 둔화에 이어 최근에는 소매 판매마저 7개월 만에 감소하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고금리도 부담이다. 미국이 현재 기준금리(5.25~5.5%)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환율도 무역수지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긴축 재정을 표방하는 정부에 투자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경제 악조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입장이다.

여기에 유가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최근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분쟁 장기화와 전쟁 확대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이르다.

국내외 기관 역시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8월보다 0.1%포인트 낮췄고, 내년 전망치는 2.2%로 1%포인트 내렸다. 금융연구원과 하나경영연구소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은 각각 2.1%로 한은의 8월 전망보다 낮다.

해외 기관들이 전망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대 초반에 불과하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로 기존 2.4%에 거 2.2%로 하향 조정했다. JP모건과 노무라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2%와 2.3%다.

/뉴시스

남도장터 '김장 기획전'…최대 30%↓

22일 '김치의 날' 맞아 홍보관·직거래장터 운영

전남도가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지역 농특산물소비 촉진을 위해 '김장' 기획전과 '수산물 사랑해(海)' 기획전을 운영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마련한 기획전에선 김장에 필요한 젓갈류·천일염 등 수산물은 최대 30%, 절임배추·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은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할인행사는 남도장터 쇼핑몰(https://jnmall.kr)에서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남 농수축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특판 행사는 계속 이어진다.

오는 22일 광주 금남로에서 개막하는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에 참여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전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남도장터 홍보관'을 운영한다.

27~28일에는 서울 목동아파트 단지에서 전남도 김장재료 직거래장터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서울 직거래장터 특판 행사는 '청정전남아 우리집 김장을 부탁해'란 표어로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 /권형안 기자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시 최대 40% 온누리상품권 환급

해양수산부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함께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하여 행사를 확대 진행하기로 하였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시 개최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뉜다. 상시행사·소규모특별전은 평일에는 13~18시, 주말에는 9~18시에 운영되며, 대규모특별전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9~18시에 운영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90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행사 부스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2만5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구매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이 환급된다.

못생기고 작아도 맛 최고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크기는 작아도 맛있는 사과를 소개하고 있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비타민·칼륨·식이섬유가 풍부한 크기가 작은 못난이 사과(비정형과)를 할인 판매한다.

'고금리'에도 5채 이상 다주택자 3년 만에 증가세 전환

10채↑ 다주택자 4만1738명…51채↑ 1698명

무주택 954만1000가구…통계 작성 이래 최대

집을 5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직전 2년 연속 줄었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13만명 가까운 20대와 30대 '영끌족'이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18일 통계청의 '2022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4361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5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2015년(10만4548명) 10만명을 넘어서더니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11만4916명으로 11만명대를 돌파했다.

이어 2018년에는 11만7179명으로 확대됐으며 2019년에는 11만8062명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0년(11만6814명), 2021년(11만3984명)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3년 만에 다시 증가폭을 키웠다.

고금리에 주택 거래가 얼어붙어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6년 연속 11만명대를 유지한 셈이다.

1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4만1738명으로 조사됐다. 10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014년 2만8540명에서 2015년 4만1036명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까지 4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9년 4만2868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20년(4만2670명), 2021년(4만1904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했다.

작년 주택을 5~10채 소유한 사람은 7만7851명으로 전년(7만7257명)보다 늘었다.

11~20채 소유한 사람은 2만5594명, 21~30채 6705명, 31~40채 1573명, 41~50채는 945명이다. 주택을 51채 이상 소유한 최다 다주택자는 1693명이나 됐다.

반면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여전히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954만1000가구로 전년보다 15만5000가구 증가하며 전체 가구의 43.8%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68만6000명으로 2021년 유주택자가 된 사람(103만6000명)보다 35만명 줄었다.

특히 대출을 끌어다가 내 집 마련에 나섰던 2030세대 '영끌족'은 12만3000명이나 집을 처분했다.

/뉴시스

가장 많이 팔린 중고차 1위 그랜저·2위 모닝

3분기 가장 많이 팔린 중고차가 국산차는 현대 그랜저, 수입차는 벤츠 E클래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KB캐피탈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가 올 3분기에 판매된 중고차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국산차는 현대 그랜저, 수입차는 벤츠 E클래스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 중고차 판매량 분석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KB차차차에서 판매된 중고차 데이터를 분석해 순위를 산출했다.

국산차 판매량 순위 1위는 현대 그랜저, 2위 기아 모닝, 3위 현대 아반떼, 4위 현대 쏘나타, 5위 기아 카니발이 차지했다.

지난 분기 판매량과 비교했을 때 기아 모닝은 4위에서 2위로, 기아 카니발은 2위에서 5위로 순위가 변동됐다. 기아 모닝은 고금리 시대에 저렴하고 경제적인 중고차로서 주목받으며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수입차 판매량 순위 1위는 벤츠 E클래스가 차지했으며 2위부터 5위까지는 BMW 5시리즈, 벤츠 S클래스, 아우디 A6, BMW 3시리즈 순이다.

기아, LA오토쇼서 'EV3·EV4 콘셉트' 북미 첫 공개

새로운 북미 전기차 라인업 예고…'더 뉴 쏘렌토' 선봬

기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23 LA 오토쇼 사전 언론 공개 행사에서 전기 콘셉트카인 EV3와 EV4를 선보이며 북미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는 이날 EV3 콘셉트, EV4 콘셉트를 북미에 공개하며 EV 라인업 확장과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고 전동화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기아는 EV3 콘셉트와 EV4 콘셉트를 공개하며 기아 북미 전기차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될 모델을 예고했다.

EV3 콘셉트는 강인하고 기하학적으로 조화를 이룬 차체에 역동적인 루프 라인으로 '이유 있는 즐거운 경험'을 표현한 실루엣을 갖췄다.

전면부는 깨끗하고 볼륨감 있는 차체 면과 새로운 EV 타이거 페이스를 적용해 견고하면서도 다가가기 쉬운 친근한 모습을 보여준다. 미래 지향적 느낌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차폭을 강조하는 수직형 헤드램프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였다.

EV4 콘셉트는 기아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의 '미래를 향한 혁신적 시도'를 주제로 세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기아가 추구하는 차세대 전동화 세단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기아는 이번 LA 오토쇼를 통해 '더 뉴 쏘렌토(쏘렌토)'도 북미 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쏘렌토는 세련되고 강인한 외관과 함께 개방감과 편의성을 겸비한 실내를 갖췄으며, 외장은 '미래적인 대담함(Futuristic Boldness)'이라는 콘셉트로 미래지향적이고 다부진 SUV 디자인을 갖췄다.

기존 모델의 강인하고 역동적인 스타일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적 감성이 돋보이는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실내는 수평적인 이미지에 하이테크한 감성을 더해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담았다.

'한 돈' 금 반지 40만원 넘었다

금 1돈 37만4000원 역대 최고…1g짜리 돌반지 인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치솟고 있다. 특히 1돈(3.75g) 짜리 돌반지가 40만원대에 육박하는 등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금은 위험이 없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수요가 늘어난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이 5월 이후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2020년 온스당 2075달러)에 근접한 것이다.

금 현물가는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약 9% 급등했다. 지난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금 가격은 전일 대비 23달러(1.17%) 급등한 온스당 1987.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7만원대에서 움직이던 KRX금시장 금 1g의 가격은 지난 달 26일 8만6790원으로 지난 5월 이후 반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금 1돈(3.75g)은 35만4000으로 전일 대비 2000원 올랐다. 지난 달 28일에는 37만4000원으로 올라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금값이 오르며 대표적인 금 제품인 돌반지 가격도 비싸져 돌 반지 선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돌반지를 하나를 맞추려면 금 시세와 세공비를 포함하면 40만원을 넘는다. 실제로 한국금거래소에서는 순금 돌반지 1돈이 41만3000원, 순금 돌팔찌는 46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에는 돌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하루에 3~4건씩 올라오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과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장롱 속에 묻어둔 돌반지를 금값이 오를 때 팔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선물용 돌반지 구입 부담이 커지자 무게를 4분의 1정도로 줄인 1g짜리 돌반지도 주목 받고 있다. 또 1kg 단위가 부담스러운 개인투자자들이 늘면서 100g짜리 미니금의 거래량도 증가했다.

KRX 금시장에서는 '금 1kg'과 '미니금 100g' 두가지 상품이 거래된다. 1kg짜리 금 거래량은 최근 한 달간 27% 가량 늘어났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880명 재점검

전국 17개 시·도 동시 3차 특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1·2차 점검에서 4332명을 점검한 결과, 20%에 해당하는 880명의 위반행위 총 93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은 앞선 점검에서 각각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 ▲수사의뢰 128건 ▲경고·시정 471건을 받았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44명은 위반행위 2건, 4명은 위반행위 3건으로 확인돼 중복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CEO 공공부문 수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한국서비스경영학회로부터 'Service Excellence Award' CEO 공공부문에서 박성현 사장이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성현 사장은 '고객 최우선 경영'을 통해 2023년 국제항만협회(IHPA)의 지속가능성장 어워즈에 안전분야, 환경분야 2개 부문 최우수 항만으로 선정됐다.

/광양=조순익 기자